

한·중·일 한시에 나타난 ‘落花’의 보편성과 독자성

허 이 령 *

I. 서론

예전부터 시인들은 꽃으로부터 많은 시상을 얻었다. 피어나는 꽃은 일반적으로 ‘생명의 탄생’, ‘기쁨’, ‘아름다움’ 등과 같은 긍정적인 이미지로 사용되었고, 이와 반대로 지는 꽃은 ‘죽음’, ‘소멸’, ‘애조’, ‘무상’ 등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꽃은 피어나면 반드시 떨어지는 법이다. 이에 따라 ‘낙화’(落花)는 세계적으로 보편성을 지닌 시적 소재가 되었다. 특히 매화, 벚꽃, 복숭아꽃 등은 동북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꽃들이기에 이들의 낙화는 동북아의 시인의 시적 영감을 유발하곤 했다. 그러나 같은 소재라 할지라도 사람마다 보는 눈이 다르고 저마다 인식하는 것이 다른 법이다. 물론 공통된 교감대가 있기도 하지만 한·중·일 세 나라 각자 고유의 문화적, 역사적 배경으로 인한 독자적인 문학적 감수성도 작용할 것이다.

본고는 전통시대의 한·중·일의 한시작품 중 ‘떨어지는 꽃’을 묘사한 ‘낙화시’를 통해 ‘낙화’라는 문학적 소재가 각자의 문화권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고찰하려고 한다. 물론 여기에는 동북아의 보편성과 독자성이 동시에 존재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먼저 나라와 관계없이 나타나는 ‘낙화’의 보편적 상징성을 살피고, 그 후에 각 나라에서 나타나는 독자성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을 탐구하려고 한다. 이러한 보편성과 독자성에 관한 고찰로 동북아 세 나라는 더욱 서로를 이해하고 자신을 알아가는 것을 기대한다.

II. 중국의 낙화시 - 낙화에 대한 일반적 개념

어떤 나라의 특정 장르의 시를 고찰하려고 할 때, 먼저 해당 작품이 그 나라에서 어떻게 인식되어 왔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중국에서 는 낙화시에 대해 어떤 시선으로 보았을까? 또 시대에 따라 낙화를 보는 시선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중국의 낙화시를 고찰하려면 먼저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신익철의 논문에 의하면 중국의 낙화시는 당나라 때부터 보이기 시작하여, 청나라 때까지 계속 이어진 것이다.¹⁾ 그러나 이러한 작품들은 처음부터 ‘낙화시’라는 하나의 분류로 명명된 것이 아니었다. 낙화시에 대한 시선변화를 알아보기 위해서 『예문유취』(藝文類聚)와 『문완영화』(文苑英華) 등 시의 선집에 나타난 낙화시의 분류를 살펴보겠다.

『예문유취』는 624년에 집성된, 당나라 이전의 시문(詩文)을 수록한 유서(類書)이다. 구성은 천(天)·세시(歲時)·지(地)·주(州)·군(郡)·산(山)·수(水)·부명(符命)·제왕(帝王) 등의 46부(部)로 분류되어 있는데, 항목마다 먼저 사설을 기록하고 다음에 그것에 관한 시문(詩文)을 수록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 책에서 낙화와 관련된 시어가 드러난 한시는 대부분 세시부(歲時部) 아래 춘(春) 항(項)으로 분류되어 있다.²⁾ 이러한 분류법을 살펴보면, 당나라 때까지 시에서 나오는 낙화는 계절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봄날의 지나감을 표현하는 소재이다. 아름다운 봄이 영원히 가지 않고 언제가 사라지는 것은 인생의 무상감과도 결부되어 있다. 낙화와 봄, 그리고 무상감의 결합이

1) 신익철, 「李鳳煥의 檳林體와 낙화시(落花詩)에 대하여」, 『한국한문학연구』, 한국한문학회, 1999.

2) 『예문유취』(藝文類聚) 세시부(歲時部) 아래 춘(春)에 수록된 26수 시 중에 ‘낙화’나 ‘화낙’이라는 시어가 나타난 시는 시가 5수가 있고, ‘도낙’(桃落) ‘방화영락’(芳華零落) ‘향락’(響落)가 나오는 시가 한 수씩이 있다.

잘 이루어진 시로 양원제(梁元帝) 蕭繹(소역, 508-554)의 〈춘일〉(春日)을 들 수 있다.

春還春節美	봄이 다시 돌아와 봄 시절이 아름답도다
春日春風過	봄날에 봄바람이 스쳐 지나가
春心日日異	봄의 마음은 매일매일 다르지만
春情處處多	봄의 정은 방방곡곡에 있다
處處春芳動	방방곡곡에 봄의 고운 풀이 흔들리며
日日春禽變	매일매일 봄의 동물이 달라진다
春意春已繁	봄은 이미 깊어갔지만
春人春不見	봄날의 그이가 보이지 않아
不見懷春人	봄을 품은 그이를 보지 못하니
徒望春光新	봄경치의 새 모습도 헛된 것이여
春愁春自結	봄의 근심은 스스로 만든 것이니
春結誰能申	누가 그것을 풀겠는가?
欲道春園趣	봄날 정원의 정취를 말하려 했으나
復憶春時人	다시 봄날의 그이가 생각나는군
春人竟何在	봄날의 그이 대체 어디 있으려나?
空爽上春期	상큼한 봄은 헛되어버리네
獨念春花落	이제 오직 떨어지는 봄꽃이
還似昔春時	예전의 봄날과 비슷하네

시인이 낙화로 인해 유발된 시적 감정 중의 하나는 바로 자연의 영속성과 인간의 유한성의 대조이다. 지금 내 눈앞에 보고 있는 이 꽃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피었지만, 그때 내 옆에 있던 그 사람은 이미 떠났고, 순화하는 화기(花期)와 달리 다시 오지 않는다. “다시 봄날의 그이가 생각나는군”, “봄날의 그이 대체 어디 있으려나”가 바로 이러한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다.

위의 인용작품에서 보이는 것처럼 ‘낙화’는 계절이나 시간의 지나감을 표현하면서 세상사정[人事]와 대조해 무상감을 표현한다. 이와 같은 경우, 시인은 순환하는 계절을 자족성이 있는 자연으로 설정한다. 꽃이 떨어짐에 따라 봄날도 지나갔지만, 내년에 피는 꽃이나 올해 피는 꽃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한다. 자연의 순환으로 의한 종결 없는 자연 앞에 인간의 수명이나 청

춘은 너무나도 짧고 한탄할 만하다. 이러한 시상을 잘 나타내는 작품으로 유희이(劉希夷, 651-679)의 〈대비백두옹〉(代悲白頭翁)을 들 수 있다.

洛陽城東桃李花 낙양성 동쪽 복숭아꽃 오얏꽃은
 飛來飛去落誰家 날아오고 날아가서 누구 집에 떨어지나
 洛陽女兒好顏色 낙양의 아가씨는 얼굴빛 곱지만
 坐見落花長歎息 우두커니 지는 꽃에 길게 한숨 쉬다
 今年花落顏色改 올해도 꽃이 지면 얼굴빛이 변하리니
 明年花開復誰在 내년에 꽃 펼 때에 누가 다시 있으리
 已見松柏摧為薪 소나무 잣나무가 장작 됨을 보았고
 更聞桑田變成海 뽕밭이 변하여 바다 됨을 들었네
 古人無復洛城東 옛 사람은 성 동쪽에 다시 없는데
 今人還對落花風 지금 사람 꽃보라 속에 다시 서 있네
年年歲歲花相似 해마다 피는 꽃은 비슷하지만
歲歲年年人不同 해마다 사람은 같지 않구나
 寄言全盛紅顏子 들어라 한창 나이 젊은이들아
 應憐半死白頭翁 얼마 못 살 늙은이를 가엾어 하라
此翁白頭真可憐 노인의 흰머리가 불쌍해보이지만
 伊昔紅顏美少年 그도 지난날엔 홍안의 미소년
 公子王孫芳樹下 젊은이들 더불어 꽃나무 아래 놀고
 清歌妙舞落花前 맑은 노래 멋진 춤을 꽃보라 속에 즐겼지
 光祿池臺開錦繡 호사로운 자리³⁾에서 잔치도 벌였고
 將軍樓閣畫神仙 화려한 저택⁴⁾에서 신선을 그렸네
 一朝臥病無相識 하루아침 병이 드니 찾아오는 사람 없고
 三春行樂在誰邊 봄날의 즐거움은 누구에게 가버렸나
 宛轉蛾眉能幾時 고운 눈썹 아가씨야 언제까지 고우려나
 須臾鶴髮亂如絲 눈 깜짝할 새 흰머리가 실처럼 얹히리니
 但看古來歌舞地 예전부터 노래 춤이 끊임없던 이곳에도
 惟有黃昏鳥雀悲 이젠 황혼 속에 새들만 슬퍼 우네

(劉希夷, 「代悲白頭翁」, 『全唐詩』)

위 작품에는 ‘화락’(花落)이나 ‘낙화’(落花)라는 시어가 여러 번 나왔다.

3) 광록대부(光祿大夫) 왕근(王根)의 화려한 거처에 비유하여 화려한 지재를 가리키는 말.

4) 한나라 때 부귀영화를 누린 대장군 양익(梁翼)이 근사한 누대에서 신선화(神仙畫)를 펼친 일화를 가리키는 말.

이는 순환적이고 영속적(永續的)인 자연과 유한한 인간 삶의 대비를 위해 사용된 것이다. 이처럼 시 속에서의 낙화는 봄날 혹은 세월이 흘러가는 것, 인생의 무상과 유한성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 시적 소재이며 자연물로서의 이미지로는 부각되지는 않는다.

『예문유취』 이후 송나라 때(982년) 『문원영화』(文苑英華)라는 천 권짜리의 시문선집이 집성되었다. 여기서 낙화와 관련된 시는 ‘석화’(惜花)라는 항목으로 분류되었다. ‘석화’는 ‘춘’(春)의 아래로 ‘화목’(花木) 밑에 분류되었다. 분류형식으로 보면 이 선집에서 낙화는 봄이나 봄의 지나감을 표현하기 위한 시적 소재(혹은 코드)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꽃이 떨어지는 것 자체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물론 이러한 감정도 인생의 무상감과 연결될 수 있다. 그러나 낙화라는 소재가 봄을 표현하는 부수적인 시적 소재에서 아름다움의 주체로 부상된 것은 중요한 변화이다. 『문원영화』 ‘석화’에 실린 백거이(白居易)의 낙화시 한 수를 보기로 하자.

可憐天艷正當時 사랑스럽고 요염하게 핀 꽃이 한창이었는데
剛被狂風一夜吹 밤새도록 거세게 부는 광풍을 맞았네
今日流鶯來舊處 오늘 고운 꾀꼬리가 꽃이 피었던 곳에 왔다가
百般言語泥空枝 온갖 울음소리로 꽃이 없어진 나뭇가지를 슬퍼하네
(白居易, 「惜花」)

위 시는 꽃이라는 아름다운 존재가 떨어지고 만 사실에 대한 아쉬움, 낙화의 가련함을 표현하는 작품이라 하겠다. 이 시에서 꽃은 봄날의 지나감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꽃 자체로서 의미 있는 것이고 ‘낙화’라는 시적 소재는 ‘아름다움의 소멸’로서 유한성을 표현하였다.

꽃 자체로의 존재감은 확보됐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낙화시’라는 용어가 성립되지는 않았다. 낙화를 언급한 시는 일찍부터 나타났지만 이러한 시가 ‘낙화시’라는 명칭으로 개념화 된 것은 『명시평선』(明詩評選)에서 찾아볼 수 있다. 『명시평선』에 실린 당인(唐寅, 1470~1507)의 낙화시 옆에 “낙화시는 심주부터 대량 창작되기 시작했는데, 심주의 시보다 더 나쁜 것이 없다(落花詩倡自石田, 而莫惡於石田)”는 평이 붙어 있다. 석전(石田)은 명나라 문인

화가인 심주(沈周, 1427-1509)의 호이다. 그는 낙화를 시제로 한 50수의 연작시를 창작했는데 그의 제자 당인(唐寅)이 30수의 낙화시를 차운하였다. 심주의 생몰년으로 볼 때 중국에서 ‘낙화시’의 개념은 15세기경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 시기에 낙화시가 대량으로 연작된 것은 강남일대 오중시인의 특징적인 문학취향과 풍류이다.⁵⁾

‘낙화’라는 시적 소재는 후대로 내려오면서 다양한 의미가 부여되며 풍부한 감성을 표현하게 되었다. 그 중에는 『악부시집』(樂府詩集)의 〈매화락〉(梅花落)에서처럼 집을 떠난 자의 향수를 표현하는 것도 있고, 도연명(陶淵明)의 〈도화원기〉(桃花源記)에서 “낙영빈분”(落英繽紛)이라는 구절처럼 아름다운 경치를 표현하는 것도 있다. 그러나 거시적인 맥락으로 볼 때 중국 문학작품에서 ‘낙화’는 상춘비추(傷春悲秋)의 슬픈 정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 논의한 낙화에 관한 시상은 인간이 아름다운 꽃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일반적인 감정일 것이다. 따라서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 심지어 다른 나라의 시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봄’, ‘세월’, ‘청춘의 지나감’, ‘인생의 무상함’은 동아시아 낙화시의 보편성을 지닌 주제라고 생각된다. 우리가 보편적인 것이 어떤 것인지 정리하면 독자적인 것이 어떤 건지도 알 수 있게 된다. 다음에 이어질 일본과 조선의 낙화시에 대한 논의에서는 앞서 살펴본 보편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일본과 한국 한시에서 보이는 ‘낙화’에 대한 독자적인 감수성을 찾아보도록 하겠다.

III. 일본의 낙화시 - 幽玄美

앞서 논의한 것처럼 중국에서는 15세기경에 ‘낙화시’라는 용어가 성립되었다. 이에 비해, 일본에서는 1018년에 집성된 『와칸로에이슈(和漢朗詠集)』의 춘부(春部)에 벌써 ‘부낙화’(付落花)라는 항목이 보인다. 이점을 감안하면

5) 신익철, 「李鳳煥의 檀林體와 낙화시(落花詩)에 대하여」, 『한국한문학연구』, 한국한문학회, 1999, 221쪽 주석 13번 참조.

일본에서는 일찍부터 ‘낙화’가 중요한 시적 소재로 주목받았다는 추정이 가능할 것이다. 실제로 이른 시기부터 일본의 한시 창작층은 낙화라는 소재를 많이 사용하였다. 가령 일본의 텐노(天皇)에 의해 열린 꽃의 연회[花の宴]에서는 즉석으로 시를 읊어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때 시인들은 눈앞에 바로 보이는 꽃을 시적 소재로 삼고 시를 창작하였다.⁶⁾ 따라서 혜이안(平安) 시대 낙화시의 창작계층은 왕실 구성원이나 텐노를 모시는 귀족들이었다. 이러한 멤버들이 창작한 낙화시는 일종의 귀족적인 취미로 볼 수도 있다. 일본 사가텐노(嵯峨天皇, 786-842)의 작품 한수를 보기로 한다.

過半青春何所催	별써 절반이 지나간 청춘 어찌 이리 빨리 갔는지
和風數重百花開	오늘은 따뜻한 바람 거듭 부니 온갖 꽃이 피었네
芳菲歇盡無由駐	무성하게 우거진 고운 꽃은 머물지 않고 떨어지는 법이니
爰唱文雄賞宴來	화연(花宴)을 즐기라고 문장지사를 불렀네
見取花光林表出	꽃빛이 금 밖으로 나온 것을 보고
造化寧假丹青筆	조화자(造化者)의 화려한 붓을 빌리고 싶더라
紅英落處鶯亂鳴	붉은 꽃잎이 떨어진 곳에 페꼬리가 어지럽게 울며
紫萼散時蝶群驚	자줏빛 땐 꽃반침이 흩어질 때 나비떼가 놀라워하네
借問濃香何獨飛	짙은 꽃향기가 어쩐지 흘로 나느냐 물어보니
飛來滿座堪襲衣	날아와서 모든 사람의 옷에 배었네
春園遙望佳人在	몰리에서 봄날의 정원을 보니 아리따운 이가 있어
雜亂繁華相映輝	떠들썩하고 무성한 꽃들과 서로 곱게 비쳐준다
點朱顏 級髻鬟	고운 얼굴에 화장을 하고, 머리에 상투로 머리를 장식하여
吹入懷中嬌態閑	바람에 의해 꽃잎이 품안으로 들어는 개인의 고운 자태가 한 가롭다
朝攀花 暮折花	아침에 꽃을 따고, 저녁 때 꽃을 깠고
攀花力盡衣帶賖	꽃을 꺾으려고 힘을 다 하여 옷이 헐렁해졌다
未厭芬芳徒徒倚	그래도 고운 꽃에 절리지 않아 괜히 머물고 있어
留連林裡晚光斜	숲 안에 유연하여 저녁 달빛이 떨어져 간다
妖姬一玩已為樂	요희는 자기의 놀이를 즐기며

6) 일본의 사서(史書)에 있는 화연에 관한 기록에서 문인이 천자의 명을 받아 시를 지은 사실이 많이 나타나있다. 꽃을 구경하면서 즉흥적으로 시를 짓게 되었으므로 바로 눈에 들어오는 꽃이나 떨어지는 꽃을 소재로 삼은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일본 최초의 화연에 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幸神泉苑, 覓花樹, 命文人賦詩, 賜錦有差, 花宴之節始於此矣”(『日本後記』, 卷22)

不畏春風總吹落 봄바람에 계속 떨어지는 꽃잎을 꺼리지 않다
 對此年華絕可憐 이 아름다운 시절이 몹시 사랑스러워
 一時風景豈空捐 지금만 있는 이 풍경은 어찌 헛되이 보내겠는가
 (嵯峨天皇, 〈神泉苑花宴賦落花篇〉, 『凌雲集』)

위 작품은 낙화를 아름다운 것으로 보는 작가의 시선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 떨어지는 낙화가 너무 아름답고 소중한 것인 반면, 볼 수 있는 시간은 극히 짧기에 문장지사를 불러서 연회를 연다는 대목이 눈에 띈다. 꽃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유한성으로 인해 슬퍼하는 중국적 ‘상춘비추’(傷春悲秋)의 정서와 달리, 이 일본 작품에서는 아름다운 꽃이 떨어지는 유한성을 아름답게 보는 시선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紅英落處鶯亂鳴, 紫萼散時蝶群驚, 借問濃香何獨飛, 飛來滿座堪襲衣”라는 대목에서는 시인이 시각, 청각, 후각 등의 감각을 모두 동원해서 화려한 필치로 낙화의 아름다움을 묘사하고 있다. 붉은 빛과 자줏빛을 띤 꽃잎이 떨어짐에 따라 꽃의 향기로 가득차는 절경이 펼쳐지지만, 이러한 것은 금방 사라지기에 시간을 아껴서 즐기자는 시인의 시선을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꽃이 떨어지고 소멸이 되는 무상한 운명은 슬픔이 아니라 극히 아름다운 것으로 인식되는 미적 감각은 일본 특유의 감수성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본적 감수성은 어떻게 형성되었을까? 오카 마코토(大岡信)에 의하면 일본인은 원래부터 떨어지는 꽃을 선호하는 것은 아니었다. 일본의 가장 오래된 시가집인 『만요슈(萬葉集)』의 시대에는 시인들이 떨어지는 꽃에는 그리 관심이 없었다. 그들에게 꽃은 피어있는 것일 뿐이었다. 그런데 헤이안(平安)시대가 되면서 꽃이라면 떨어지는 것이라는 사상이 나오기 시작하고, 『신고킨슈』(新古今集)의 시대에 이르러서는 꽃이란 지기 위해서 피는 것이라는 시선까지 보여줄 정도로 시인들이 지는 꽃에 대해 대단한 관심을 보이게 된다.⁷⁾

중국과는 다른 모습을 띠고 있지만 일본시인들이 떨어지는 꽃에 주목하는 것은 역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잠재하는 무상관 때문이다. 영원히 지속되고 언제나 볼 수 있는 아름다움보다 일정한 기간 내에만 빛을 발하는 것에 더

7) 大岡信, 『日本詩歌讀本』, 188~189쪽.

욱 눈부시게 느끼는 것이다. 이러한 감수성으로 인해 꽃이 떨어지는 장면은 중요한 문학적 소재가 될 뿐만 아니라 미학적으로 ‘짧지만 아름답다’는 느낌은 ‘짧아서 아름답다’로 변해간다. 나중에 이러한 사상은 군국정부에 의해 이용되어 ‘젊은 나이에 죽기 때문에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죽음의 애상 미학으로 발전되기도 했다.⁸⁾ ‘소멸’하고 ‘죽음’과의 결합하는 미의식은 그 독자적인 특성으로 ‘유현(幽玄)’이라고 불러진다. 이러한 일본 미학에 관련해서 시를 한 수 더 보기로 하자.

花落春歸共背心 꽃이 떨어지는 것과 봄이 지나가는 것을 모두 마음에 담고
更逆行路共相尋 더욱 가려진 길에 모두 찾으려고 한다

(중략)

媚景臨岐殘雪亂 화려한 경치에 아직 녹지 않은 눈이 어지럽게 있고
芳晨按轡晚霞深 고운 아침에 말을 타고 나왔다가 벌써 노을이 질었다
光陰冉冉當頭走 세월이 끊임없이 떠나가며
一日追歡勝萬金 하루의 향락은 만량 화금보다 더욱 귀하다

(藤原輔尹, 〈花落春歸路〉, 『本朝麗藻』)

이러한 ‘급시행낙’(急時行樂)의 미학에 매료되었던 일본시인에게는 화려하게 피고서도 짧은 시간 내에 화려하게 져버리는 벚꽃이 매화를 대신하여 제일급의 시적 소재가 된다.⁹⁾ 시가집에 나오는 꽃을 보면 만요슈(7세기~8세기)에 수록된 5000수의 시 중에서 벚꽃을 언급한 작품은 오직 40수에 불과한데, 고친와카슈(905 또는 914)에 수록된 130수의 시 중 100수가 벚꽃을 언급한다¹⁰⁾는 것은 눈처럼 떨어지는 벚꽃은 일본인에게 그만큼 중요한 미적 소재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 전통시대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떨어지는 꽃’은 지금까지도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제 일본에서 ‘꽃’이라는 단어는 저절로 벚꽃으로 연상되며,¹¹⁾ 화려하게 떨어지는 벚꽃은 일본에서 ‘꽃’의 대명사가 되었다. 이러한 점은 일본인의 ‘낙화’에 대한 시선

8) 오오누키 에미코(大貫惠美子), 『사쿠라가 지다 젊음도 지다』, 모멘토, 2002, 82쪽.

9) 임성철, 『한국고전시가문학에 나타난 자연』, 한국일본학협회, 2002, 92쪽.

10) 이어령, 『매화』, 생각과 나무, 2003, 50쪽.

11) 이어령, 『매화』, 생각과 나무, 2003, 93쪽.

을 표현하고 있다.

IV. 조선의 낙화시

이제까지 중국과 일본의 낙화시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낙화에 대한 독자적인 감수성이 어떠했을까? 한시 창작층에 해당되는 조선 선비들은 낙화에 대해 어떤 시선을 지니고 있었을까? 이 문제를 고찰하기 위해 우선 조선에서 사랑 받았던 꽃의 종류를 살펴보자. 조선 시가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꽃 종류는 매화이다. 선비들의 매화에 대한 선호는 단순히 소박함에 대한 미적 취향¹²⁾과도 관련이 있지만 매화가 지닌 이념과 상징성도 크게 적용하고 있다. 고려말의 차원부(車原頫)가 매화에 대한 이미지를 ‘은일’이나 ‘절개’의 상징으로 표현한 이후, 한국에서 매화는 이러한 정신성의 상징으로 일반화 되었다.¹³⁾ 다른 꽃처럼 따뜻한 봄날에 피지 않고, 혼자 추운 날씨에 피어나는 매화는 속세를 따르지 않고 자신의 뜻을 견지하는 꽃으로 인식되었고, 이는 바로 매화의 이미지이자 조선 선비들의 이상이었다. 조선 선비들은 열악한 환경에 굴하지 않고 차가운 바람을 이겨내고 피는 매화를 이념화하였다. 다시 주의를 요하는데 조선 선비의 정신성이 부여된 것은 ‘피는’ 매화에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조선은 일본처럼 떨어지는 꽃을 선호하지 않고 피는 꽃을 사랑하였다. 이와 관련해서 조선중기의 대표 문인 퇴계 이황의 낙화시 한 수를 보기로 하자.

朝從北山訪春來	아침에 산 북쪽에서 봄을 찾아오니
入眼山花爛錦堆	시야 속 산꽃들이 찬란한 비단처럼 쌓여있네
試發竹叢驚獨悴	대나무 떨기를 헤쳐보다 유독 초췌함에 놀라고
旋攀梅樹嘆遲開	매화나무를 불잡고 더디 핌을 탄식했네
疏英更被風顛簸	성진 꽃은 다시 바람에 몰려 마구 날리고
苦節重遭雨惡催	괴로운 그 절개가 거듭 사나운 비를 만나 꺾이네
去歲同人今又阻	지난해 함께 했던 사람들 지금도 서로 머니

12) 이사회, 『꽃으로 보는 한국문화 1』, 도서출판 넷서스, 1998, 151쪽.

13) 박혜숙, 「조선의 매화시」, 『한국한문학연구』, 한국한문학회, 2000, 423쪽.

淸愁依舊浩難哉 黑은 시름이 의구하여 드넓게 걷잡을 수가 없네

(이황, 「三月十三日, 至桃山, 梅被寒損, 甚於去年, 印竹亦悴.
次去春一律韻, 以見感嘆之意. 時鄭眞寶亦有約」, 『梅花帖』)

위 인용시에서 보이는 “바람에 몰려 마구 날리고”, “사나운 비를 만나 꺾이네”와 같은 표현은 꽃을 떨어뜨리는 바람과 비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이황의 시선을 드러내고 있다. 매화가 피는 과정이야말로 한사(寒士)의 절개를 상징하는 것이다. 시인은 피는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외부의 힘에 떨어지는 매화를 애석해 할 뿐이다. 이러한 감정은 중국의 석화(惜花)와 비슷한 면도 없지 않지만, 아름다움이 소멸된다는 무상감보다 선비의 절개나 뜻을 세우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뚜렷이 나타난다.

조선 중기에 이르러 조선에서도 연작 낙화시가 나타났다. 경화세족(京華世家)에 속한 홍봉한(洪鳳漢)은 매사(梅社)라는 시사를 만들고 몇 백 수의 연작 낙화시를 창작하였다.¹⁴⁾ 일부러 몇 백 수의 낙화시를 지으려고 한 것은 아니었으나 다른 시사 동인들이 한 사람의 낙화시를 보운(步韻)¹⁵⁾하다가 대략 4백수에 이르는 낙화시가 지어졌다. 매사(梅社)는 이름에서 보다시피 매화를 읊은 시사이다. 그러나 그들이 보이는 낙화에 대한 생각은 이황 때와는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다. 이봉환의 〈낙화시서〉(落花詩序)에 이들이 낙화를 보는 시선이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다.

꽃이란 것은 조화의 시이며, 시라는 것은 문장의 꽃이다. 만약 천지간에 장존(長存)하고 떨어지지 않은 꽃이 있다면,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꽃이 꽃으로서의 의미도 없어진다. 생생불궁(生生不窮)하고 신신상속(新新相續)하여 저절로 피어나고 저절로 떨어지는 것이야 말로 자연의 신비함이며 조화의 묘한 기운이다. 꽃이 꽃대로 있는 것은 하루아침이나 하룻밤만의 일이 아니다. 때가 될 때까지 쌓이고 모으며, 때가 되면 저절로 피어나고 저절로 떨어진다. 하늘의 이치에 따라 저절로 피는 꽃에 기뻐하지 않고, 저절로 떨어지는 꽃에

14) 洪代言叔道賦落花詩，始非有聯篇類幅之意，偶然信手，今日成一疊，明日又成一疊，牽連而至於八，乃曰“卦數成矣”，遂止焉。同社諸人，各步其韻，居然為六十四，追後聞而見而和之者甚眾，久而未已。雖由此引而申之，至於三百八十五，亦無怪也(李鳳煥，「落花詩序」，『雨念齋詩文稿』7卷)。

15) 보운: 남의 시를 화답하면서 연구(聯句)마다 그 원운(原韻)을 사용하는 시체이다.

슬퍼하지 않는다.¹⁶⁾

(李鳳煥, 「落花詩序」 7卷, 『雨念齋詩文稿』)

위 인용문에서 이봉환은 매사(梅社)에서 낙화를 보는 시선을 밝히고 있다. 이 글에 의하면 꽃은 자연의 섭리에 따라 저절로 피고 떨어지는 것이 당연하며 그러한 과정이 아니면 조물주의 기묘함을 알 수가 없다. 또한 순환하면서 해마다 다시 피고 떨어지는 꽃은生生지리(生生之理)의 상징이므로 꽃이 핀다고 해서 특별히 기뻐할 것도 없고, 시들이 떨어진다고 해서 슬퍼 할 것도 없다. 늘 제기되어온 화개화락(花開花落)의 무상함을 자연의 섭리로 받아들이며 이러한 변화에 감정의 기복을 느끼지 말라는 철학적 사상까지 보인다.

매사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낙화시서〉를 지은 이봉환은 시사 활동 이외에도 개인적으로 낙화시를 지었고 화가문인 이인상과 5수의 낙화시를 주고 받았다. 〈낙화시서〉에서 밝힌 매사의 ‘낙화’에 대한 시선도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이봉환이 이인상과 함께 지은 낙화시는 이것과는 또 다른 독자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봉환이 낙화시에 대해 독특한 창작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아래의 인용문은 이봉환이 이인상과 낙화시를 주고받는 일에 대해 쓴 글로, 시인의 창작의식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옛 사람이 간혹 낙화를 읊기도 하였으나 낙화의 정조와 자태를 곡진히 표현하지 못하였다. 원령¹⁷⁾이 말하기를 “일찍이 『沈石田集』을 보니 낙화시가 있었는데 그 역량이 거의 미치지 못할 정도이다.”라고 하였는데 과연 어떠한지는 끝내 알 수가 없었다. 봄철도 이미 저물어 들에 낙화가 가득한데 우리 모두 뜻을 폐지 못한 사람인자라 수심과 감개함을 스스로 다스릴 수가 없다. 우연히 시를 주고받았는데 각기 몇 편을 이루었다. 어쩌면 가장 失意한 지경에서 가장

16) 花者造化之詩也，詩者文章之花也。然使天地有長存而不落之花，則非但無是理，亦安用花乎哉？唯其生生不窮，新新相續，自開而自落，方是自然之機，不如是造化之妙息矣。花之為花，非一朝一夕之故，積累翕聚時至，運到自然而開，自然而落，自然而開花不以為喜，自然而落花不以為悲。

17) 원령(元靈): 이인상의 자.

得意한 시를 얻는 것인지도 모르겠다.¹⁸⁾

(李鳳煥, 『念雨齋詩文鈔』 권2)

위 인용문에 나오는 “우리 모두 뜻을 펴지 못한 사람”은 이봉환과 이인상과 같은 서얼출신을 가리키고 있다. 이봉환은 같은 처지의 서얼문인끼리 빈번히 시를 주고받았다. 재능이 있어도 주어진 신분제한 때문에 사대부에게 가장 중요한 입신양명을 할 수 없으니, 그 답답한 마음이 당연히 시인의 감수성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우리 모두 뜻을 펴지 못한 사람인지라 수심과 감개함을 스스로 다스릴 수가 없다. 우연히 시를 주고받았는데 각기 몇 편을 이루었다. 어쩌면 가장 실의(失意)한 지경에서 가장 득의(得意)한 시를 얻는 것인지도 모르겠다”라는 대목에서 낙화시의 창작은 신분적 한계로 인한 불우한 정서를 풀기 위한 것이고, 바로 이러한 심적 상태 하에서 이인상과 낙화시를 주고받았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봉환은 서얼인 자신의 울분을 의식하면서 낙화시를 지은 것이다. 이러한 창작의식은 조선에만 있는 독특한 역사적·사회적 배경에서 생성된 것이다. 다음은 이봉환의 낙화시이다.

先飛惶恤後	황망하게 먼저 날아간 뒤
餘寄只茫然	남은 꽃잎 다만 망연히 있을 뿐
敗兆非關雨	<u>패망의 조짐은 비 때문 아니거니</u>
殊姿自短年	<u>빼어난 자태가 절로 단명한 것이다</u>
遊絲迎不住	하늘거리는 거미줄 맞이해도 머물지 않고
故樹礙仍懸	옛 나뭇가지 가로막자 그대로 걸려 있다
哀哀隣妍醜	슬프게도 날아가 추함과 이웃하여
悠揚井溷邊	이득히 흙탕물 가에 떨어지네

(李鳳煥, 『雨念齋詩文鈔』, 권2, 「落花詩」 其三)

위 인용문의 전체 분위기는 상당히 비애가 짙은 편이다. 낙화가 망연자실한 상태가 된 것은 비와 같은 외부적인 이유가 아니라, 저절로 패망할 자신

18) 古人或賦落花，而皆未能曲其情態。元靈以爲曾見『沈石田集』，有賦落花詩，其力量殆不可及云，而竟未知果何如也。春序已宴，滿庭皆花，吾輩皆失意之人，愁慨不自定，偶然酬唱，各成幾篇，抑未知最失意境得最得意詩否也。

의 운명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은 바로 시인 자신의 처지를 투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방황하고 머물 곳이 없는데다 마지막에는 땅에 떨어졌는데, 그것도 더러운 흙탕물 옆이다. 시인은 낙화를 자기 자신으로 생각하고 낙화를 통해 방황, 불우, 도움을 받지 못한 감정을 대변하고 있다. 이러한 낙화시의 모습은 앞에서 언급한 동아시아의 다른 낙화시와 명확한 차이가 있다. 이봉환과 이인상이 주고받은 낙화시를 한 수 더 보기로 한다.

猶意支持數日看	주저하며 떠나지 못하고 며칠을 계속 지켜보았거니
曉枝空影不曾闌	새벽 가지 적막한 모습에도 계을리 하지 않았네
後來薪積如相籍	나중에 떨어진 꽃잎 섟처럼 쌓여 서로 의지하고
隣勢存亡可耐寒	이웃한 형세 서로 도움이 되어 추위를 견딜만하구나
堆處蟲沙仍並化	충사 ¹⁹⁾ 가 쌓인 곳에서 함께 돌아가려 하는데
存餘鶯燕又唧殘	꾀꼬리 제비 남아서 남은 꽃잎 머금고 다니네
五陵少年愁何數	장안의 부귀자제들이야 무슨 시름 있겠는가
難慰風人寂寞欄	시인의 쓸쓸한 거처를 위로하기 어렵다네

(李鳳煥, 『雨念齋詩文鈔』, 권2, 「落花詩」 其五)

위 작품에서도 이봉환이 낙화에 자신의 우울한 기분을 투사한 것을 알 수 있다. 중국과 일본의 낙화시를 논할 때 열거한 낙화시에서는 시인이 인간(타자)의 입장에서 낙화를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위에 인용한 이봉환의 낙화시에는 시인자신이 바로 그 불쌍하고 의지할 데 없으며 뜻을 펴지 못한 낙화로 인식되어 있다. 그 슬픈 운명은 단지 떨어지기만 하는 운명이 아니라 떨어져서도 같은 처지에 처한 사람과 서로 의지하지 못한 채 외부의 힘(꾀꼬리)에 의해 외톨이가 되는 것이다. 이 점에서 자신을 ‘떨어진 후의 낙화’로 비유한 이봉환은 독자적인 방식과 이미지로 자신만의 낙화시를 창출하였다고 하겠다.

낙화에 관한 시상뿐만 아니라 이봉환이 사용한 문체도 특기할 만하다. 난해한 한자를 많이 사용한 것을 특징으로 한 이 문체는 ‘초림체’(椒林體)라고 명명된다. 조선 문인 이규상(李奎象, 1727-1799)이 이 문체에 대해 평가한

19) 蟲沙: 죽은 자, 여기서는 소외된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생각된다. “相傳周穆王南征 全軍盡沒, 爵子化為猿與鶴, 小人化為蟲與沙” 『太平御覽』 卷九一。

내용이 당대 재자(才子)를 평하는 『병세재언록』(并世才彥錄)에 수록되어 있다.

(이봉환의) 시 중 칠언율시는 매우 정밀하게 표현되어 있고, 글자 한 구절도 구차하게 놓인 것이 없어 근세의 뛰어나고 훌륭한 곡조라 하겠다. 그러나 시의 정조(氣味)가 초췌²⁰⁾하고 풍운(風韻)이 번축하여 사상을 칼과 같이 예리하게 표현하니, 비록 그 수단은 뛰어나고 힘이 있지만, 기교가 각삭(刻削)하고 첨예(尖銳)한데로 흘렀다. 이를 가지고 입으로 읊으면 곧 산초 가루가 혀를 얼얼하게 하는 것 같고, 눈에 대면 마치 시름한 바람이 눈동자를 쏘는 듯하니, 결코 감정이나 성격이 중간에 있는 평화로운 필법이 아니다. 이봉환이 창시한 이 시체는 오직 자신만 능할 뿐이고 다른 사람이 배우려고 하지만 따르지 못한다. 이른바 ‘초립일파’는 봉환의 시체를 흡모하여 따르려고 하지 않은 자가 없었는데, 그중에 재주가 넉넉한 사람이 겨우 출함을 감출 정도이고, 힘이 약한 자는 비쩍 마르고 비틀거리 말이 조리를 이루지 못하였다. 그 幽怪孤詭함은 마치 귀신이 울고 도깨비가 웃는 듯하니, 쌓여진 억울함이 없이 어찌 이처럼 괴이한 글을 쓸 수 있겠는가?²¹⁾

(李奎象, 『并世才彥錄』, 「文苑錄」)

위 인용문은 이규상이 이봉환의 초림체에 대해 평한 것이다. 이 문체는 얼얼한 산초(山椒)처럼 눈과 혀를 맵게 하고 고전 한시가 추구한 중용에서 크게 벗어났다고 하였다(絕非中和之陶寫). 이봉환은 왜 이러한 문체를 창출했을까? 이규상은 이러한 어둡고 괴이하고 외로운 문체는 쌓여진 억울함이 없으면 절대 쓸 수 없다고 결론짓고 있다. 『병세재언록』에 실린 이글은 이봉환의 낙화시를 평한 글이 아니지만 초림체로 이루어진 낙화시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봉환의 낙화시는 이처럼 가슴 속에 쌓인 불평함에서 비롯된 것이다. 요컨대 조선 시대의 특유한 신분 불평등의 문제가 이봉환의 낙화시의

20) 焦殺: 주로 성조(聲調)의 촉급함을 일컫는 말인데 돈후(敦厚)와 반대된 개념으로 쓰이기도 한다.

21) 詩之七律, 精刻入裡, 一句不苟措, 近世絕調. 然氣味焦殺, 風韻繁促, 巧思銳鋒, 手段則高強, 而巧流於刻銳, 轉為急口, 則椒粒辣舌, 遮眼, 則酸風射翳, 絶非中和之陶寫. 凤煥創是體, 惟己能之, 他人則畫虎不成, 所謂椒林一隊, 莫不景從於鳳煥體, 才富者, 僅藏拙, 力弱者, 枯槁行, 語不成理, 幽怪孤詭, 如鬼哭魅笑, 無乃積只之氣騰其光怪耶?

창작배경이 된 것이다.

V. 결론

본고는 동아시아 낙화시에 대한 기초적인 탐구이다. 중국의 낙화시를 시대의 흐름에 따른 인식을 대략적으로 살피면서 ‘낙화’는 ‘봄날’, ‘세월의 흘러감’, ‘인생의 무상함’ 등을 표현하는 시적 소재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상춘비추’(傷春悲秋)의 정서는 한, 중, 일, 나아가 세계 공통적인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각각의 민족과 나라에는 특유한 독자적 감수성이 있는 법이다. 이에 일본과 한국의 문학작품에 나타난 ‘낙화’를 살피면서 그 독자성을 찾아보았다.

일본에서 ‘낙화’는 이른 시기부터 인식되었던 문학적 소재로 각별한 사랑을 받았다. 특히 ‘벚꽃’은 거의 꽃의 대명사로 사용되어 왔고 벚꽃의 꽃잎이 화려하게 떨어지는 모습은 일본인의 미적 의식에 깊은 영향을 주었다. 유한하고 무상한 인생관과 더불어 낙화처럼 짧지만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에 대한 하나의 미적 가치관이 형성되었다. 즉 ‘떨어져서 더욱 아름답다’는 유현미(幽玄美)가 일본시인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된 것이다.

일본시인이 벚꽃을 선호하는데 비해 한국시인은 매화를 선호했다. 이러한 미적 취향은 꽃의 외형보다 매화가 가지는 정신성, 즉 ‘절개’, ‘온일’ 등 선비를 상징하고 있는 점 때문이다. 따라서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피어 난 꽃’은 문인들의 사랑을 받았고, ‘떨어진 꽃’은 늘 애석해하는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매사(梅社)의 연작 낙화시에는 꽃이 피어나는 것이나 떨어지는 것은 자연의 섭리에 따른 것으로 기뻐하거나 슬퍼 할 필요가 없다는 철학적 사상이 표출되었다. 마지막으로 서얼출신 이봉환이 지인과 주고받은 낙화시에는 떨어진 꽃잎과 같이 의지할 데가 없고 망연 자실한 자신이 투영되어 ‘낙화’의 새로운 표현력이 창출되었다.

참고문헌

文苑英華, 中華書局

藝文類聚, 新興書局

明詩評選

石田詩選

養花小錄

大東詩選

樂府詩集

일본한시집

凌雲集

文華秀麗集

經國集

和漢朗詠集

初學記

菅家文草

白香山詩集

김종훈, 「김종길의 ‘산유화’론과 현대시의 ‘낙화’ 모티프 연구」, 『비교한국학』, 비교한국학회, 2006.

박혜숙, 「조선의 매화시」, 『한국한문학연구』, 한국한문학회, 2000.

신익철, 「李鳳煥의 椒林體와 낙화시(落花詩)에 대하여」, 『한국한문학연구』, 한국한문학회, 1999.

신익철, 「18세기 매화시의 세 가지 양상」, 『한국시가연구』, 한국시가학회, 2004.

이사희, 『꽃으로 보는 한국문화 1』, 도서출판 넷서스, 1998.

오오누키 애미코(大貫惠美子), 『사쿠라가 지다 젊음도 지다』, 모멘토, 2002.

이어령, 『매화』, 생각과 나무, 2003.

임성철, 『한국고전시가문학에 나타난 자연』, 한국일본학협회, 2002.

辰己正明, 石觀海 譯, 『萬葉集與中國文學』, 武漢出版社, 1997.

加藤周一, 『日本文學史序說』, 筑摩書房, 1991.

菅野禮行, 『平安初期における日本漢詩の比較文學的研究』, 筑摩書房, 1991.